

***캄보디아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베*리와 딸 김*현 상담 및 지원**

이 가정보다 긴급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가정도 저희 교회가 세들었던 이전 건물 1층에서 외국인 전용마트점을 운영하는 여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4년 전 국제결혼 중 개인을 통해 한국 남자를 만나 경남 마산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베*리씨 남편은 일도 하지 않는 심각한 알콜중독자였습니다. 딸이 갓난 아기였을 때도 폭력을 일삼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대구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피신을 하였고 그 기관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면서 지금까지 딸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왔습니다. 5년 전쯤 경기도 화성으로 거처를 옮겨서 일을 하며 딸 아이를 키울 때는 '비트 코인 열풍'이 불 때였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만난 캄보디아 결혼이민자 친구의 권유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조금 모은 돈과 캄보디아 부모님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비트 코인에 몽땅 투자를 했는데, 2천 만원 정도 되는 돈을 잃는 데는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트 코인 투자를 권유한 친구가 지금의 김포시 마송지역으로 먼저 이사를 왔는데 자신이 권유한 일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힌 베*리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잃은 돈을 다시 만회해 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김포로 가족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기에 또 다시 은행 대출을 받아 친구와 함께 외국인 전용마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꼭 친구를 동반하고 온다는 말이 있듯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결국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떠 안은 빚도 천만원 이상 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리씨를 제게 소개해준 마트 여사장님이 베*리씨 부탁을 받고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보니, 베*씨가 김포에 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아야 하고 어린 딸도 학교에 보내고 살아보겠다고 형편 때문에 교통이 좋지 않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집을 얻어 일하는 공장까지 출근해야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려니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 하나를 샀습니다. 문제는 이 차를 운행하며 교통법규 위반해서 얻은 교통 범칙금, 차량에 부과된 세금,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여서 내야 할 환경부담금 등이 쌓여 30건 이상인데, 전화로 알아 보니 액수만도 4.5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38만원 원룸을 새로 얻었는데, 저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내지 못한 월세를 독촉하는 주인에게 제 전화를 알려주어 '그 주인 전화받는 게 무서우니 목사님이 좀 대신 받아주라'는 부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물정을 잘 몰라 생긴 어려움도 있으나 이 여성이 참 규모없이, 대책없이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베*리씨가 갚아야 할 빚이 어림잡아 5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대출받은 돈 갚는 것도 문제지만 캄보디아 부모님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생각만 하면 너무 절망스럽다고. 상담을 하는 내내 깊은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딸 때문에 지금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노라고,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똑같이 절망했을 겁니다.

이대로 냅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먼저 주님께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 대책없는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도울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갈 희망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궁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위기 가정에 긴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의 문을 두드리 보았습니다. 이*드복지재단에 월세 지원을 요청했고, 김포복지재단에는 위기 가정 긴급지원을, 읍사무소에 찾아가서는 주거비 지원이 되는지를 알아보니 창구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한번 신청해보라 해서 베*리씨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물품지원

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현금 지원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다급한 사정이라 지원요청 사유를 작성해서 무조건 지원 요청서를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큰 액수는 아니어도 요청한 모든 곳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 다. 이*드 재단에서는 월세 40만원씩 계산해서 6개월치를 보내주었고, 김포복지재단에서는 긴급지원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서 86만원을 보내주어서 캄보디아에서 받은 대출금 갚는데 보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신청한 지 거의 3개월 만에 베*리씨 월 수입액이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당분간 월 25만원씩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현재 중학교 1학년인 딸, 미*이도 만나보았는데, 빛에 절망하며 한국말도 서툴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엄마랑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눈빛과 태도가 참 많은 말을 하는 듯 보이는데, 무언가 많이 위축되고 자기 감정과 표정이 정지된 아이 같았습니다. 말을 시켜봐도 한참 물어봐야 겨우 단답형의 대답만 겨우 했습니다. 모녀간이 다 희망을 잃고 무기력에 빠진 우울증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베*리씨가 대구 쉼터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교회 목사님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인지 '우선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자'며 기도해 줄 때 마음이 움직이는듯 보였고, 당분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권했더니 모녀가 다 그래보겠노라 응해주었습니다. 베*리씨는 토요일에도 아르바이트로 야간 일을 해서 일요일 주일예배를 잘 못나오지만 더 걱정되었던 딸 미*이는 벌써 2,3개월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한달에 두 차례씩 아이의 마음을 살피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진 않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안정을 찾은 듯 보이고 이제는 말을 시켜도 곧잘 응대해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정말 찼(!)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잘 풀려가고 희망을 보게 되고, 살아갈 용기와 하나님 만나 새 힘을 얻고, 믿음 주십시오!

*기도제목

1.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삶의 커다란 위기 가운데 저희 교회와 센터를 찾아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희망을 회복하는 계기를 통하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는 미얀마 난민 가정과 캄보디아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정, 몽골 가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드리는 이주민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랜 겨울 추위를 밀어내고 곧 봄 기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난민,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진행할 여러 계획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좋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면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치유되고 살아갈 힘을 얻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주민센터가 이주민들의 삶의 자리로 더 가까이 다가가 이웃과 친구 되어 삶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며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미얀마의 내전이 그치고 민주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미얀마 난민분들이 도움 받는 입장에서 태국에 있는 미얀마 난민촌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태국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2023년 3월 2일

작은이의벗 친구교회◆더불어함께 이주민센터 : 이학산목사

(후원계좌 : 농협 150109-51-140298)